

완도군,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사업비 5억원 확보

금일 충동마을 풍치 숲 주민·단체 조성 주민들 휴식·만남 등 친목·소통 장소

완도군은 2021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총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금일 충동

마을 녹색네트워크 풍치숲 조성사업으로 앞으로 마을 주민·단체들과 함께 숲을 조성하게 된다. 사업 선정을 위해 신청 단계부터

다 지역과 차별화된 숲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군에서 자생하는 방향식물(왕과꽃 등)에서 향기가 나는 식물을 전략적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마을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 향후 연도교 건설을 통해 관광 자원화가 가능한 곳, 주변 산림과의 조화를 극대화하여 지역 특유의 경관 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 참여 숲 조성사업'은 마을의 유휴 토지, 자투리땅 등에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이다.

숲 조성을 통해 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 만남, 모임 등 친목과 소통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매해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활 속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1 곳의 숲이 조성되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서도 마을 주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숲 조성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을마다 아름다운 숲이 있는 완도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군만의 차별화된 숲을 조성하고자 계획 단계부터 지역 자생 수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꾸준하게 식재하고 있다.

그 결과, 마을 숲 콘테스트 최우수상과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평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통합의학박람회장 의료 관광 명소로 꾸민다



장흥군은 통합의학박람회장 일원의 종합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대한민

통합의학 클러스터 구축해 새로운 명소

국통합의학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상황에 맞는 박람회장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나선 것이다. 군은 박람회장을 행사뿐만 아니라 연중 관광객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텐트촌 등 가족단위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현장을 방문한 정중순 장흥군수는 "통합의학박람회장과 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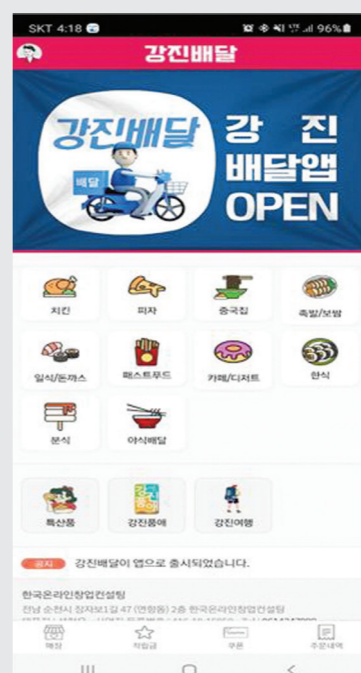
통합의료병원, 로하스타운을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해 시너지를 높이고, 새로운 의료관광 명소로 꾸어주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내년 대한민국통합의학 박람회 관람객들에게 통합의료의 다양하고 폭 넓은 체험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배달앱' 운영

8개 업종 40여개 점포 등록



강진군이 강진읍내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강진배달' 앱을 출시했다.

군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 배달음식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배달앱 개발에 착수했으며 9월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강진배달' 앱에는 치킨, 카페, 디저트, 한식, 분식 등 8개 업종, 40여개 점포가 등록됐고, 점포별 메뉴 사진과 가격정보가 게시돼 있어 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결제 방식은 배달을 받은 후 현금, 카드, 상품권, 계좌이체로 직접 지불하는 후불 결제 방식이다. 가맹점은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인상 부담 없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상생 방식을 채택했다.

'강진배달' 앱에서는 음식 주문뿐만 아니라 강진군 특산물 쇼핑도 가능하다. 강진배달 앱 내 군 특화상품과 유기농 강진품에 메뉴를 구성·판매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적극성·창의성·전문성 등 평가...채승표·장민재·이병운·홍난주 선정



채승표 장민재 이병운 홍난주 진도군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4명을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은 농업지원과 채승표 주무관, 지역개발과 장민재 주무관, 수산지원과 이병운 팀장, 의신면 홍난주 주무관이다. 군은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실적검증과 1차 실무심사와 함께 외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진도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군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난

이도와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지표를 중점 평가했다.

농업지원과 채승표 주무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지급절차 간소화로 군민 편익을 증진하고 마을현장 지급기간 운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지역개발과 장민재 주무관은 2013년 사업확정 후 추진이 부진했던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조기 토지보상 완료, 행정절차의 동시 진행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기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올해 6월 사업을 착공하는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았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내년 신규시책 151건 발굴

행정수요·지역발전 원동력

해남군은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명현관 군수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급변하는 행정수요 및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신규시책 총 151건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대안을 논의했다.

올해 신규시책은 그동안 중앙부처 등 방문으로 국도비 확보 활동을 지속

적으로 강화해온 결과 중앙부처 연계 사업이 작년 대비 16건 늘어났다.

주요 신규시책으로는 용역관리 종합평가제 도입, 내손안에 보물창고'해남특산물' 운영, 미남 해남글로벌관광지 조성, 귀농귀촌인 빈집은행제 추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희망터치 마음건강 무인검진기 운

영 등이 발굴되었다.

특히, 생활밀착형스마트도서관, 배수감문 스마트시스템 구축, 고정형 선별진료소 신속운영, 공평화석지 디지털 어린이 과학 체험공간 조성 등 22개 사업은 해남형 뉴딜사업으로도 결정돼 향후 정부의 한국형 뉴딜과 부합한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강진상권활성화 간판 정비사업

강진군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을 위해 '강진상권활성화 구역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상권활성화 구역 간판 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9월 군 단위 최초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노후된 간판이 도시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군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국비 포함 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진읍 상권 내 현 간판을 새 간판으로 교체해주고 있다.

군은 1월 간판 개선사업 디자인 개발 및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사업기간 내 230여 개 업소를 개별 방문 후 점주의 동의를 얻어 간판 디자인을 확정했다. 이후 7월부터 간판 제작 및 설치작업에 돌입했으며 9월 말까지 총 433개의 간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